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SUMMER

국
립
민
족
기
념
관

2014 여름호

Since 1894

동학농민혁명

120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전

2014. 5. 19(월) ▶ 7. 18(금)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혼을 현재에 일깨우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표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가’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공모주제

-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대상

- 전 국민(제한없음)

시상내역

- 대 상 1명 상금 5,0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 우수상 1명 상금 2,0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 장려상 1명 상금 5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제출서류 및 제출물

- 응모신청서 1부
- 악보 3부 (A4사이즈, 16마디 이상, 2절 이상)
- 녹음된 응모곡(가사포함), 악보가 저장된 CD 1개

접수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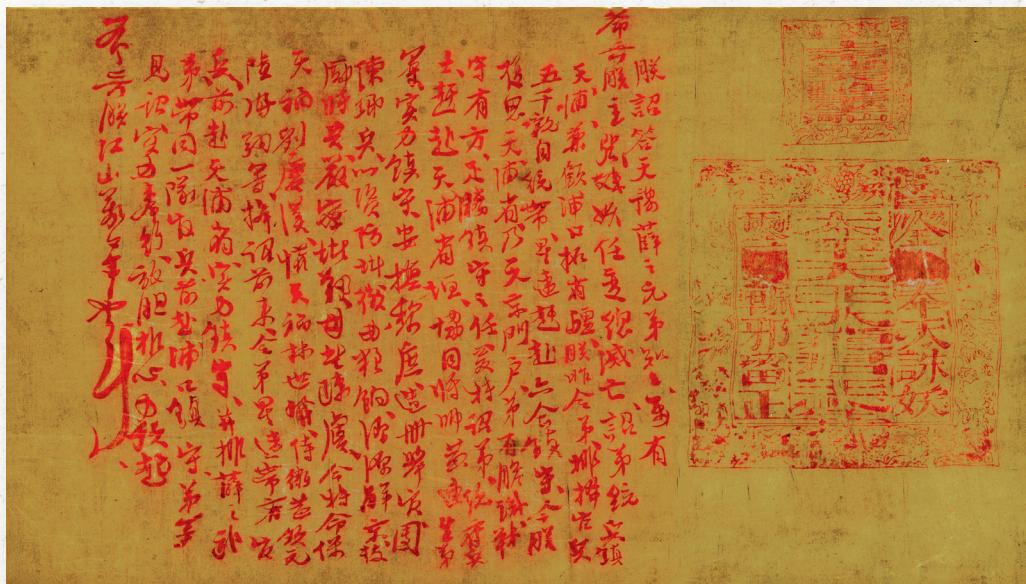
- 우편 및 방문접수 :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문 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Tel. (063)538-2896 E-mail. djiori@1894.or.kr

※ 자세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일자 | 2014. 10. 10(금) ▶ 2014. 10. 11(토) 장소 |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120주년 기념 특별전시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展

중국 태평천국역사박물관 대여유물 소개



1858年 天王洪秀全諭答天豫薛之元詔

〈남경태평천국역사박물관 소장, 원소장처 : 중국제1역사기록보관소〉

태평천국(太平天國)은 청나라 말, 홍수전(洪秀全)과 농민군이 세워 1851년부터 1864까지 약 14년간 존속한 나라이며, 이들이 일으킨 반란을 ‘태평천국운동’이라한다. 홍수전은 1843년 배상제회라는 종교를 창시하였는데 2천여 년 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유교 이념과 만주족(淸)의 지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건설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빈농, 광산노동자, 유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1858년에 작성된 이 문서는 태평군이 청군 격파 후 두개의 포를 수복할 당시의 것으로 홍수전이 직접 반포한 것이다.

CONTENTS 2014 여름. 16호

02

04 재단포커스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공동개최 MOU체결



06

22

06 기획특집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맞이 120그루 상생의 나무를 심다

10 녹두칼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공동개최의 의미

12 1 !

무안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과 발전·확산을 위하여
- 참여자 최선현의 증손 무인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최효섭

16 2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강수

20

백산대회
-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22

원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28

동학교단의 강경노선을 이끈 황하일

30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류태길

34

동백, 역사를 위한 소설

36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37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40

전봉준장군 추모제 개최 외

46

웹진 '녹두꽃' 독자원고 모집안내 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4년 여름호(16호)

발행일 2014년 6월 30일

발행인 김대곤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이메일 1894@1894.or.kr 홈페이지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링크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녹두꽃 웹진 발간을 기념하며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기운차게 솟아오른 풀잎은 날카롭게 베어진 서슬 푸른 죽창처럼 느껴집니다. 우거진 녹음처럼 드높았던 동학농민군의 기상이 1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강산 곳곳에서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동학농민혁명관련 연구 성과와 자료를 소개하며, 기념재단과 관련단체의 사업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가을호부터 2014년 봄호(15호)까지 지면으로 발행해 왔던 녹두꽃이, 이번 2014년 여름호(16호)부터는 웹진(Web zine)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웹진이란 인터넷(World Wide Web)과 잡지(Magazine)의 합성어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발간되는 잡지를 뜻합니다. 전자매체의 특성을 활용해 멀티미디어적 요소의 도입과 독자와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외보, 동호회보 등이 웹진으로 발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독자들의 확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동학농민혁명관련 연구 성과와
자료를 소개하며, 기념재단과 관련단체의
사업 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도 기대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잡지입니다.

소식지가 웹진으로 발간됨에 따라, 다양하고 효율적인 제작방식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양질의 간행물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웹진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와 연동해 데스크탑과 모바일을 통해 구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송신수단이 기존의 우편에서 이메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소요가 줄어들고, 더 빠른 배포를 통해 소식지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을 지면을 통해 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웹진 '녹두꽃'에 관심과 성원을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 대 곤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공동개최 MOU체결

기념대회 공동개최 협의과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 4의 2항에 의거, 해마다 동학농민혁명과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해 기념대회를 치러왔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즉 2주갑을 맞이한 특별한 해로 올해의 기념대회는 10월 10일(금)부터 11일(토) 까지 서울특별시청 신청사에서 개최된다. 재단에서는 이를 더욱 성대하고 의미 있는 행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을 공모를 통해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로 선정하기도 했다. 재단과 천도교는 서로의 의견을 타진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상생, 협력정신에 입각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데 입을 모았고, 120주년 기념대회를 공동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대표하는 단체인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역시 재단 측의 공동개최 제안을 수락하여 세 단체가 공동으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난 2014년 5월 15일(목)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 간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공동협력 양해각서(MOU) 협정식이 열렸다.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협정식은 세 단체의 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식순 진행과 각 단체장들의 인사 이후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정한 상호협력 사항은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식, 동학농민혁명 관련자 및 천도교인이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의 밤’행사,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우표(나만의 우표) 발행,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문화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공동개최와 관련한 기자회견 등 대회홍보, 기타 각 측이 추가 합의한 사항 등이다.

이번 공동개최 협정 체결은 동학농민혁명 기념단체와 천도교, 유족회가 서로 손을 잡고 12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상생,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올해의 기념사업을 공동추진 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음은 물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각 단체장의 한마디

“박남수 교령님과 유족회에서 대승적으로 판단, 양보해 주셔서
오늘의 체결식이 가능하게 됐다. 세 단체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덜 부끄러운 후손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에 모든 기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김석태 회장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사업 공동개최의 성공을 기원하는 모든 동학관련단체와 유족회 회원, 천도교인, 나아가 국민까지도 협정을 같이 체결한다는 마음이 듈다.”



천도교 박남수 교령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맞이
120그루
상생의 나무를
심다

상생의 정원 조성 진행과정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대화합과 상생”을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주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상생의 나무심기’행사를 개최하였다. ‘상생의 나무심기’행사는 120주년의 의미에 맞춰 관련단체, 전국 지자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0그루의 나무를 기부 받아 기념관 앞 공터에 식수하여 ‘상생의 정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계기 기념식수 120그루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3일(월)부터 3월 37일(목)까지 관련단체, 전국 지자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백나무, 꽃사과, 석류나무, 호두나무, 홍단풍 등을 기부받았다. 기부자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나무에 기증자의 표찰을 제작하여 이름과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하며, 지난해부터 재단이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은 것을 활용하여 현물 및 현금기부에 대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당초 120그루를 기부받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행사였으나, 재단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리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총 257그루의 기부가 이루어지는 쾌거를 올렸다. 식종도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등 예정 보다 다양한 식종이 기부되어 ‘상생의 정원’은 더욱 다채롭게 거듭나게 되었다.

상생의 나무심기 행사

지난 3월 28일(금)에는 기부된 나무의 식목을 위해 ‘상생의 정원’에서 김성호 문화 체육관광부 국장, 김인환 천도교 종무원장, 김석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영 전라북도정무부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등 전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생의 나무심기’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식전공연으로 전북도립국악원의 풍물놀이가 펼쳐진 후,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와 천도교 교령,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의 축사에 이어, 기부자가 자신의 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며 잘 자라나기를 기원하는 기념식수, 기부한 나무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올해의 희망을 문구로 담아 팻말을 거는 내 나무 이름표 달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1 '상생의 나무심기'행사가 열렸다.
2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내 나무 이름표 달기 행사 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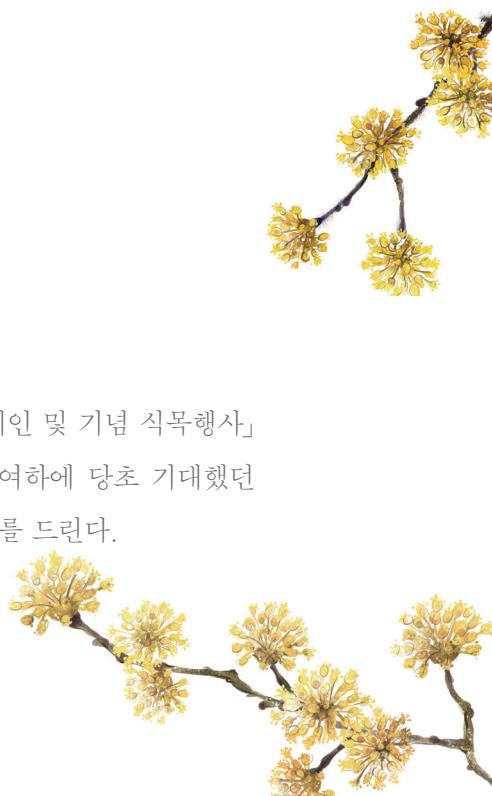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계기 기념식수 120그루 기부 캠페인 및 기념 식목행사」
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당초 기대했던
120그루를 넘어서 257그루나 기부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김대곤 이사장은 행사 중 개회사를 통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군들의 꿈과 바램을 기리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계기 기념식수 120그루 기부 캠페인 및 기념 식목행사」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당초 기대했던 120그루를 넘어서 257그루나 기부된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위해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관리계획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이번에 조성된 '상생의 정원'에 그 뜻과 의미를 담은 현황판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조경전문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조경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원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아름다운 휴식공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공동개최의 의미

청암대학교 연구교수 **성주현**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공동개최 협약 체결

금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는 갑오년이다. 100주년이었던 1994년에는 방송과 언론 등에서 취재 열기로 시끌벅적했다. 그런데 120주년을 맞는 올해는 오히려 조용하다. 다만 관련단체만 이러저러한 기념 행사를 이미 개최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초기에 조용 하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각종 기념 행사가 활성화되고 있고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 천도교, 동학농민혁명유족회(이하 유족회) 등 주요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천도교 중앙총부와 기념재단, 그리고 유족회 등 3개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도 기념식을 함께할 것을 합의하고 MOU를 체결하였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식이 전국에서 각기 지역에 맞는 날을 택하여 산발적으로 열렸으나 금년 120주년을 맞이하여 공동의 날을 정하고 함께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양해각서에는 금년도 기념식을 10월 11일, 장소는 서울 시청에서 하기로 합의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현 시점, 그동안 조용 하였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

화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가 천도교와 기념재단, 유족회, 그리고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기념대회는 100주년 때만 해도 생각해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각기 다른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기념행사는 일제강점기인 1926년 4월 7일 천도교청년당에 의해 거행된 바 있었다. 당시의 기념식이 어떤 형식으로 거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지만 일제의 억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기념식이 거행된 4월 7일은 동학농민군 최대의 승전이었던 황토현 전투가 벌어진 날이다. 해방 후 최초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도 천도교 청우당 주최로 1947년 2월 9일에 열렸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는 천도교에서 1월 1일 기념식을 가진 바 있다. 이후에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천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도교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일정한 날보다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기념해왔다. 이에 천도교단은 4.19혁명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일을 정하기로 하고, 조선일보의 주최로 사계 대표자들의 좌담회를 거쳐 3월 21일을 동학농민혁명일로 확정한 후 매년 이날 기념식을 거행해왔다. 그리고 정읍시에서는 1968년 4월 26일 백산대회

를 기념하여 갑오동학농민혁명기념문화제를 개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밖에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전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념식을 개최해온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는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는 단체대로 각각 기념식을 거행하는 과행을 보인 것도 사실이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대한 반성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는 관련 단체마다 기념행사를 하는 바람에 공동기념행사는 고사하고 일부 단체들 간에 불신이 없지 않았다. 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 측에서는 천도교를 특정종교단체라 배제하였고, 이에 따라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동단협은 동단협대로 각각 기념행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학문과 종교적 견해 차이를 줄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점도 없지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 정점에는 명칭에 대한 이견이 가장 침예하게 대립되었다. 예를 들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아 기념우표를 제작하려 하였지만 명칭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다. 천도교에는 ‘동학혁명’, 동단협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을 각각 고집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비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 20년이 지난 올해 갑오년에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은 알다시피 삼정 문란으로 대표되는 조선 왕조의 중세적인 체제 모순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수취 체제의 문란으로 수탈의 폐해를 혁파하고 신분 차별을 타파하여 일반민중인의 안정된 삶을 요구하였다.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간섭과 침략에 맞서 저지하고자 하였다. 동학농민혁명은 19세기 후반 조선이 처한 체제 모순과 외압의 시대적 조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변혁 운동 가운데 당시의 시대적 역사 과제를 가장 올바르게 인식하였던 변혁 운동이었다.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미래화·세계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의 슬로건 중의 하나가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이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은 지역중심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제대로 정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동학농민혁명 두 갑주인 올해 최대의 과제가 기념일을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에는 독자적으로 기념했던 100주년 때와는 달리 천도교단과 기념재단, 유족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대한 기념재단과 천도교의 입장은 때로는 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당시에는 천도교가 ‘특정종교단체’라 하여 배제되었지만 이번 120주년에는 함께 공동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공동행사는 기념대회뿐만 아니라 학술대회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이념을 제공한 동학은 화합과 소통을 지향하였다.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나 누구나 평등하다는 동학의 이념은 120주년을 맞는 바로 오늘 동학농민혁명의 최대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금년 동학농민혁명의 슬로건은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이다. 이 슬로건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바로 동학농민혁명 공동개최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서 가장 진일보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산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념행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해 개최하는 공동기념대회는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지향하는 토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 공동개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최효섭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으로 활동하셨던 최선현 증조부님의 증손 최효섭입니다. 2011년 무안동학농민혁명유족회와 기념사업회 발기 당시부터 사무국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증조부 세분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저의 증조부이신 최선현 증조부님과 형인 최장현 증조부님, 그리고 종제인 최기현 증조부님 세분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여 활동하셨습니다. 최선현, 최장현 증조부님은 무안의 해제와 함평의 접주셨고, 최기현 증조부께서는 주로 형들을 도우며 활동하셨습니다. 특히 최선현 증조부께서는 농민군 훈련대장으로 해제면 석산 민대들판에서 동학농민군들의 훈련을시키셨다고 합니다.

당시 해제면은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마을이

무안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과 발전·확산을 위하여

참여자 최선현의 증손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최효섭**



라 눈에 띄지 않았고, 인근에는 임치진이라는 수군진지가 있어 각처 농민군들이 육로보다는 편리한 해로를 이용하여 해제 석산으로 모여들어서 훈련을 받은 후에 해제면 대사리의 닭머리나 송산리의 도리포에서 배편을 이용하여 영광이나 함평 등지의 각종 전투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때 서남부 동학농민군 지도자이신 배상옥 장군께서 훈련장을 자주 찾아 오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순무선봉진등록』에 기록된 내용 중 1894년 11월 고부의 부자가 해제면의 도조를 거두려 왔다가 최문빈(최장현)의 저지로 돌아갔다는 사료로 보아 증조부 세분이 가난한 농민의 편에 서서 활동하셨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세분은 나주성 함락을 위해 고막포 전투에 참여하셨으나 신식무기로 무장한 관군들에게 패하게 되었고, 배상옥 장군의 해산명령에 따라 고향인 해제면 석산부락에서 숨어지내다 인근마을 주민의 밀고로 체포된 후 나주로 압송되어 처형되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참여사실에 대해 어느 분께 전해 들으셨나요?

어렸을 적부터 조부님께서 ‘너의 증조부님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해제와 함평의 접주셨고 훈련대장이셨으며 백마를 타고 다니셨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1973년에는 문중에서 해주최씨 3의사비를 마을 앞에 세워 오늘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유족 중 자손들에게 선조의 동학농민혁명 참여사실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 마을은 웃어른들의 참여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후손들에게 증조부님들의 활동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주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증조부님들께서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일본사관함』에 동학농민군 토벌을 담당한 일본군대대장들이 선봉장 이규태에게 ‘동학거괴를 잡으면 즉시 토벌대 본부(나주 순사청)로 압송하라’고 지시한 기록이 있고, 『양호선봉일기』에 의하면 압송된 94명 중 78명은 나주 일본순사청 진영에서 총살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희 조부님들이 등장하고 접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조부님 세분 모두 인근마을 주민의 밀고로 해제에서 체포되어 나주로 끌려가 1894년 12월 27일 같은 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주로 압송될 당시 최장현 증조부님의 둘째 아들인 최영환 조부께서 뒤를 따라가셨고, 처형된 시체를 불태우거나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에 검정기름을 바르는 등 참혹한 일본군의 행패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확인하여 한쪽으로 옮긴 후, 고향에 연락해 마을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초기현 증조부님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해 현재 가묘로 모시고 있습니다. 당시 체포되었던 수많은 농민군들이 현장에서 처형되었지만, 세분은 고향인 해제에서 나주까지 압송되신 사실과 일본사관함의 기록으로 보아 중책을 맡고 많은 활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조부님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하여 남기신 유물이 있으실까요?

제가 어렸을 적 최선현 증조부님이 사시던 집 뒤에서 개머리판이 발견되었으나 아쉽게도 관리소홀로 인해 잊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지금도 동학농민군들이 훈련당시 먹었던 우물물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분이 계십니까?

석산마을 옆 감정마을에 장일채 씨라는 분이 저의 증조부님과 함께 동학농민군들을 훈련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소문해본 결과 증손자 되시는 분이 여전히 해제면에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여 추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해제면의 다른 마을에서도 많은 농민군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이후 역도로 몰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사를 가거나 이름을 바꾸고 생활하셨던 분들이 많아 참여자를 발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가족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의 증조모(밀양박씨)께서는 98세까지 사셨는데, 동학농민혁명 이후 역도로 몰려 온갖 고생을 다셨다고 합니다. 1894년 1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관군들이 찾아오면 피난을 가야했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될까봐 둘째 계식과 셋째 춘식을 이불솜에 써서 소나무 밑에 감춰두고 피난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찌나 추웠던지 두분은 추위로 얼어서 머리털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털이 없으세요 물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후에도 어려운 생활을 계속 하셨으나, 6.25가 지난 후에는 후손들이 학문에 열중하도록 많은 독려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자유족 신청을 하게 되셨나요?

무안군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중 뜻있는 몇 분이 조상님들을 위해 일해보고자 여러 해에 걸쳐 노력하셨습니다. 2008년 어느 날, 당숙(한암)께서 저에게 동학농민혁명 유족 분들의 모임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석한 그 자리에서 유족회가 발족하게 되었고, 초대 유족회장이신 김광용 회장님의 노력으로 『무안동학농민혁명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 문중에서 선조 분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것에 대한 내용을 원고로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이를 제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증조부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원고를 쓰기위해 사료를 조사하고 모으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 동학농민혁명사 발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무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발기인 모임부터 사무국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지금까지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왔습니다.

현재 무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국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증조부님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이 계기가 되신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학농민혁명사를 연구하면서 구한말 외척세력에 의한 매관매직, 탐관오리에 의한 수탈, 외세침략 등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도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정신이 국가와 약한 자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에 나 자신부터 옳은 일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힘닿는데 까지 맡은 소임

과 동학농민혁명정신 계승 · 확산에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고, 현재 유족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 조금이라도 더 젊은 제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증조부님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가난하고 수탈당하는 약한자의 편에 서서 역적으로 몰리면서 까지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여하신 것이 매우 멋떳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증조부님 이후 조부모님, 부모님 세대는 곤궁하고 어렵게 생활하셨지만, 면학정신과 하면 이를 수 있다는 정신을 전해주셨기에 궁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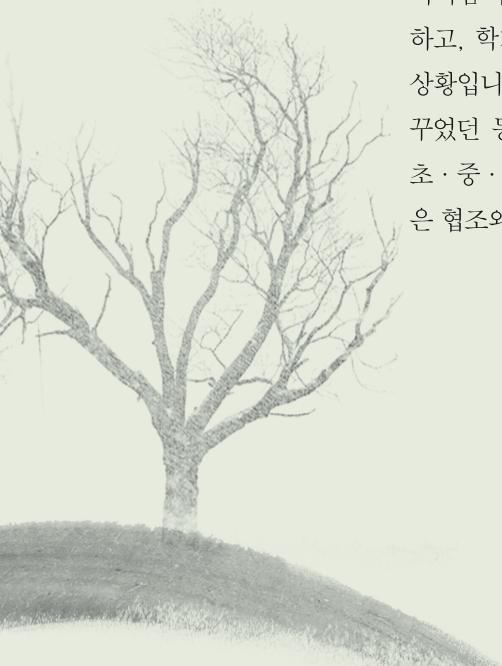


동학농민혁명 이후 두 번째 갑오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한다고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무안은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포와 중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종 집회와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많은 활동이 있었던 고을이었음에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 적고, 이에 대한 발굴이나 정리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념비조차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료에 나타난 무안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몇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오지영의 『동학사 초고본』에 의하면, 삼례집회와 광화문 복합상소에 배상옥 장군의 동생 배규찬이 참석하였고, 원평 · 보은집회에는 무안집에서 260명이 참여하였으며, 백산대회에는 무안의 장령급 참가자가 고부나 무장, 태인의 13명 보다도 많은 15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무사 이규태의 『완복서』, 『순무선봉진등록』에는 '전봉준과 김개남은 바로 거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보다 큰 자는 무장의 손화중과 무안의 배상옥입니다.', '만약 거괴를 말한다면 당연히 손화중과 무안의 배상옥을 가리켜야 할 것입니다.'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학농민혁명 당시 지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현상금을 내걸었는데, 그중 가장 높았던 1000냥의 현상금이 걸린 분은 전봉준, 무안의 배상옥 장군 두 분뿐입니다. 액수만으로도 남부도호소의 지도자로 활동하신 배상옥 장군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안지역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했음이 역사적 사실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역사적 사실 언급이나 정부의 기념사업 추진에는 뒤쳐져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무안지역 동학농민혁명이 혗되지 않도록,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농민혁명정신이 계승되고 발전 · 확산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홍보와 역사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Q 이강수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강수입니다.

Q 어떤 계기로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게 되셨습니까?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대의를 알리기 위해 100주년을 기하여 1994년 1월 4일 창립하고 2007년 4월 25일 사단법인으로 변경·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식이 부족하여 고창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전국적 관심제고와 올바른 역사의식고취를 위해 군수인 제가 2007년부터 이사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동학농민혁명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이 된 무장기포지는 현재 공음면으로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들에게 옛날이야기처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들어왔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은 성장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내 고향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후손으로써 당연히 선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2002년부터 고창의 43, 44, 45대 군수를 역임하셨는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병행하시기 힘들지 않으셨나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및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민간 단체인 기념사업회 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과 관심을 가져 민·관이 함께 고창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처음 기념사업회가 조직되었을 때와 비교해보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고창군민들의 마인드가

매우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한 것 아닐까요?

Q 무장봉기 기념제때면 항상 진군행렬 맨 앞에서 진격로 걷기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군민과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모르고 매년 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군민 여러분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생활 이야기까지 허심탄회하게 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저에게는 매우 뜻 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걷기운동은 체력, 체중, 체형, 체질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예방과 불면증 해소에도 효과가 좋아서 신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매우 유익한 운동이기도 하고요.

Q 오랜 시간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을 위해 활동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학농민혁명을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스 원작을 만들어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동학농민혁명 자료집 발간 및 소설 창작,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장기포일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문화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시상사업으로 2008년부터『녹두대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무장기포지의 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부각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요람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동학농민군 진격로 걷기체험, 포고문낭독체험, 관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인 무장기포지, 전봉준장군 생가터,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손화중 도소 및 피체지, 무장현 관아와 읍성, 고창읍성, 동학농민혁명군 진격로, 흥성동헌, 정백현 생가, 동학농민군의 숙영지인 왕재산 훈련장 테마파크 조성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Q 올해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추진 중이십니까?

2주갑을 맞은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을 기억하고 그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자주와 평등

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일대기를 역사기록화 하여 기획·전시 하였으며, 스토리텔링사업으로 창작소설 '구수내와 개갑장터의 들꽃'과 의병연구서 '고창동학 농민혁명과 의병'을 발간하는 등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 무장기포 기념행사에서 『태권도로 표현하는 동학농민혁명 뮤지컬』도 공연하였고, '인내천-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주제로 『영호남 역사기행』을 추진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적지 탐방을 통해 역사의식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정신·마인드 향상을 위해 『군민 정신 선양대회』를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Q 자랑하고 싶으신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는 무엇입니까?

Q 고창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유적지가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생가터, 무장읍성,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등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5개소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미지정 16개소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가 있습니다. 특히 무장기포지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군·현단위를 넘지 못했던 지역적 한계를 딛고 전국적 혁명의 첫 출발지가 된 곳입니다. 고을 경계를 넘어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봉준 생가터는 동학농민군의 최고지도자 전봉준이 1855년 12월 3일 이곳에서 서당훈장을 하던 전창혁의 아들로 태어나 13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두 곳은 올해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신청·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적지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문화재로 지정되어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로서의 당당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야 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Q 그 외에 고창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까요?

Q 고창은 선사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역사와 친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 갯벌과 드넓은 평야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관광의 보고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황토배기수박, 복분자, 풍천장어 등 특산물이 풍부하고, 무엇보다도 2013년 5월에 설악산 국립공원,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숲에 이어 5번째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고창군은 국내 최초로 행정 구역 전체가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되어 전국에서 으뜸으로 깨끗한 환경을 가진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세계화·미래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Q 동학농민혁명은 보수 양반 계층의 연합세력과 이들이 끌어들인 외세에 의해 실패로 돌

아갔지만, 그 맥은 항일의병항쟁, 3·1운동, 상해임시정부 및 광복군 활동 등 민족운동과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항쟁 등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농민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중국 태평천국혁명과 함께 국내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실천적 형태로 발전했다는 점과 피지배계층의 절대다수인 대규모 농민들이 참여하여 개혁의 주체세력으로 성장하였다라는 점에서 동아시아, 더 나아가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단지 120년 전에 일어났던 지난 과거의 역사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예로부터 많은 외세의 간섭과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120년 전인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자유·평등·자주의 정신을 되새김으로써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의 어려운 상황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동학농민혁명의 미래화, 세계화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Q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지역의 역사가 아니라 전국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혁명입니다. 이것을 마치 자기지역만의 역사인 것처럼 인식하는 지역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의 기본정신이 바로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로 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Q 국가기념일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2004년부터 지금 까지 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기념일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기념일이 금년도에는 꼭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과 원활한 기념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장기포지



동학농민군의 출정식 백산대회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백산대회’의 의미

무장에서 출발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와서 농민의 군대를 조직하고 출정식을 하였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여러 가지로 불러왔다. ‘백산기포’, ‘백산봉기’, ‘백산결진’, ‘백산집결’, ‘백산대회’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이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백산대회’로 통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무장기포는 포고문을 발표함으로서 일종의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지금의 상황과 견주어 생각해보면 일종의 기사회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산대회’는 출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이’이 변화하여 ‘농민군대’가 되고 이와 함께 군대로서 조직과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전체 농민군이 모인 상태에서 출정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백산에서 농민들의 활동을 ‘백산대회’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백산대회를 통해 농민군의 확대개편과 대진군을 위한 전열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백산대회의 전개

무장에서 출발한 동학농민군이 백산에 와서 농민의 무장을 출발한 전봉준, 손화중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은 고부군을 점령하고 백산으로 이동하여 진을 쳤다. 이때 무장에서 출발한 농민군은 3,000~4,000명 정도였다. 이동과정에서 전봉준, 손화중은 정읍현 인근지역으로 농민군을 보내 무장기포의 사실을 전달하고 봉기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즉 무장현을 출발하여 고부군으로 향해 가던 전봉준, 손화중은 봉기한 사실과 부대의 일정을 태인현의 김개남 등 주요 농민군 지도자에게도 전달했고, 이에 김개남도 휘하의 세력을 이끌고 태인현을 출발하여 백산에 합류하였다.

김개남이 합류함으로써 마침내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휘하의 농민군이 집결, 연합 농민군이 완성되었다. 이 백산대회에는 고창, 무장, 흥덕, 정읍, 태안, 금구, 김제 등지에서 온 8,000여명의 농민군이 참여하였다. 즉 호남우도 지역의 농민군이 총봉기 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이 3월 봉기 기간 내내 동학농민군의 주력을 이루었다. 이 연합농민군은 3월 25일 백산에서 동학농민군의 지휘체계와 조직을 구성하고 격문과 4대명의 그리고 12개조 기율을 발표함으로써 진정한 농민의 군대로서 완성되었다.

백산창의비





백산성

■ 동학농민군 지휘체계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김개남 손화중

총참모 김덕명 오시영

영술장 최경선

비서 송희옥 정백현

6. 굶주린 자는 먹인다.

7. 간사하고 교활한 자는 그치게 한다.

8. 빈한한 자는 진휼한다.

9. 불충한 자는 제거한다.

10. 거역하는 자는 효유한다.

11. 병든 자에게는 약을 준다.

12. 불효자는 죽인다.

■ 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 뜻이 다른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가운데서 견지고 국기를 반석의 위에다 두고자 힘이라.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내쫓고자 힘이라. 양반과 부호에게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을 것이니.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 4대 명의

첫째,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가축을 잡아먹지 마라.
둘째, 충효를 다하여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하라.
셋째,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는다.
넷째, 군사를 몰아 서울로 쳐들어가 권위를 모두 없앤다.

■ 12개조 기율

1. 항복하는 자는 대접한다.
2. 곤궁한 자는 구제한다.
3. 탐학한 자는 추방한다.
4. 순종하는 자에게는 경복한다.
5. 도주하는 자는 쫓지 않는다.

백산성터와 남겨진 문제

백산은 비록 47m에 불과한 낮은 산이지만, 부안, 김제, 고부, 태안, 고창 등지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고부들판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서 농민군이 집결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1894년 당시에는 고부군에 속하였던 백산성은 현재 행정구역상 부안군(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는 백제토성이 있던 곳으로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백산성의 정상 부근에는 1988년 동학혁명백산기념사업회에 의하여 건립이 추진되어 1989년 준공된 '동학혁명백산창의비'가 세워져 있다. 한편 백산대회와 관련하여 오지영의 『동학사』 이외의 자료에서 거의 기록된 내용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참고문헌

김은정 · 문경민 · 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신순철 · 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완주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동학농민혁명의 삼장군 중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김개남장군의 거점은 남원이었다. 전주성 점령을 통한 전주화약과, 전봉준 장군과 전라감사 김학진의 대담을 통해 관민상화가 이루어지며 남원대도소가 세워졌고, 남원은 전라좌도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남원은 동학농민혁명 재봉기 당시에도 가장 많은 농민군이 집결한 곳이며 민보군과 농민군 사이에 가장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곳이다. 이런 역사를 통해 다수의 전적지와 도성, 그리고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흔적이 남아있는 남원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한다.



추념의 장(원경)

[대둔산 동학농민군 항쟁지]

동학농민군 본대가 우금치에서 패배하고 후퇴하던 때, 고산의 농민군 지도자 최공우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농민군은 대둔산의 형제바위에 진을 쳤다. 처음으로 농민군이 주둔했던 1894년 11월 16일 경에는 지도자 5, 6명만 있었을 뿐이었으나, 이후 계속해서 주변의 농민군들이 합류하여 수십에서 수백의 세력을 이루었다. 형제바위는 세 방면이 큰 바위로 뒤덮여 있고, 전방에는 농민군이 큰 돌을 쌓아올린 후 총구멍을 내어 천혜의 요새가 되었다.

관군 측에서는 1895년 1월 8일경, 이곳에 공주감영의 영병을 파견하여 3일간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농민군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 실패하고 돌아갔다. 그 후 민보군이 찾아와 공격하였으나 오히려 반격당해 패주하였다. 1월 24일경에는 공주의 관군이 다시 파견되어 공격하였으나 농민군들이 총을 쏘고, 큰 돌과 거목을 떨어트리는 등 격렬히 저항하여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물러갔다. 전주 감영에서는 30여명의 포수를 파견하여 대포로 포격을 가하

게 하였으나 농민군이 주둔하고 있는 고지에 포탄이 전혀 닿지 않아 탄약만 소비하였다. 관군의 작전이 모두 실패로 끝나자 이번에는 일본군이 나서서 일본군 30여명과 관군 30여명으로 구성된 60여명의 특공대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새벽 5시에 등산용 장비를 가지고 형제바위로 기어오르며 사격을 가했으나 사방이 막힌 농민군의 요새에는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다. 이에 일본군 특공대는 관군에게 전방에서 공격을 명령한 뒤 요새 후면의 절벽을 몰래 기어올랐다. 전면의 관군과의 교전에 집중하고 있던 농민군들은 불시에 배후에서 기습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항하여 용감히 싸웠으나 결국 오후 2시경 패전하게 되었다. 특공대를 맞이하여 9시간이 넘게 항전한 것이다.

이 전투에서 어린 소년 1명을 제외한 농민군 25명이 모두 전사하였다. 이들은 대개 접주 이상의 위치에 있던 간부들 이었다. 그 중 접주 김석순은 끝까지 일본군에 항복하지 않고 한 살쯤 되는 여아를 안은 채로 절벽으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대둔산 전투에 대한 사실은 『주한일본공관기록』, 『의산유고』등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현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가 1999년 원광대학교 사학과에서 발굴하면서 공개되었다. 2001년 10월 10일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대둔산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를 세워 이를 기리고 있다.

[삼례봉기 기념비]

완주의 삼례는 백여 호 남짓인 작은 고을이었지만, 도로가 사방으로 뚫린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교조신원운동 시기에 동학교도 수천 명이 모여 삼례집회를 개최하였고,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혁명 재봉기에 앞서 이곳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기포를 준비하였다.

대둔산 동학농민군 항쟁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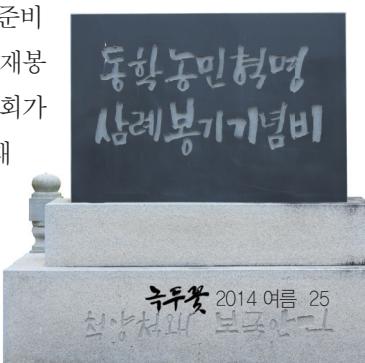


1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전적비
2 대동의 장

1892년 11월 3일,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은 삼례로 교도들을 집결시켜 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의 목적은 교조의 신원과 포교의 자유, 동학교도에 대한 침탈금지 등 종교적 요구였다. 주목할 점은 이 집회에서부터 전봉준 장군이 교단 내 중요인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소장문을 작성하였으나 탄압이 두려워 이를 올릴 이가 없던 때에 자원했던 이들이 우도의 전봉준 장군과 좌도의 유태홍이었다.

전봉준 장군은 이때부터 김개남, 손화중, 김덕명 장군과 함께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는 삼례집회 시기부터 동학농민혁명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후 1894년 5월, 전주성을 점령했던 동학농민군은 전주화약을 맷고 각 지역으로 돌아가 집강소를 세우고 폐정개혁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과 청일전쟁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자 전봉준 장군은 전라감사 김학진과 관민상화를 맷고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다 9월 10일 무렵부터 삼례에 대도소를 설치하고 재봉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도소 설치 후 5, 6일 후에는 손화중 장군이 있던 광주, 최경선 장군이 있던 나주를 방문하였으며 김개남 장군에게도 연락하였다. 이후 각지에 통문을 돌려 함께 일어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관아에도 재기병을 알려 군수품 조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인근 지역의 관아를 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다. 8월 말부터 재봉기를 준비하였던 김개남 장군도 인근 읍에서 군수물자를 끌어모았고, 9월 26일에는 손화중 장군도 통문을 돌려 인근의 농민군을 광주로 결집시켰다. 그렇게 재봉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삼례봉기 기념비’는 동학농민혁명 재봉기가 삼례에서 일어났음을 기념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1996년 세운 것으로, 비의 뒤편에는 삼례집회와 동학농민혁명 재봉기에 대한 관련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3



4

[삼례봉기 역사광장]

현재 삼례봉기 터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완주지부에서 2003년에 조성한 삼례봉기 역사광장이 들어서 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시설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이고, 구성이나 내용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오른편에는 표지석이 서 있으며, 그 뒷면에는 동학농민혁명사에 삼례가 가지는 의의를 새겨두었다. 입구로 들어서면 사각형의 기둥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기둥의 각 면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에 대한 그림이 부조되어 있다. 광장에 들어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추념의장’을 볼 수 있다. 돔 형식으로 구성된 이 ‘추념의장’은 이름 없이 스러져간 농민군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념하며 자신과 동학농민군상 그리고 하늘이 거울에 함께 비쳐 하나 되는 체험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인식하게 하는 사유의 장이라 설명되어 있다.

‘추념의장’의 왼편에는 돌무더기에서 튀어나와 쇠스랑을 잡고 있는 농민의 손과 팔뚝을 형상화한 ‘대동의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입구의 표지석 뒤쪽에는 재봉기 당시의 모습을 형상화 한 ‘동학농민군 출진상’이 2004년 추가로 설치되어 자리하고 있다.

[위봉사]

1894년 4월 27일, 농민군은 전라도의 수부인 전주성에 무혈 입성했다. 한발 늦게 전주에 도착한 홍계훈은 완산칠봉에 진을 치고 농민군과 대치하였다. 전주성을 사이에 둔 관군과 농민군의 첫 전투에서 무기의 열세와 지형적 불리함을 가지고 있던 농민군들은 패하여 성안으로 후퇴하였다. 이에 홍계훈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아래로 내려와 전주성을 향해 계속 대포를 발사하였으나 견고한 성문을 부수지는 못했다. 이때 발사한 포탄의 일부는 전주성내의 경기전을 훼손하였다. 다행히 이때 경기전에 보관되어 있던 태조 이성계의 어진과 조경묘의 위패를 전주 판관 민경승이 위봉사로 옮겨두어 훼손되지 않아 오늘날 까지 이어올 수 있었다. 홍계훈은 자신의 지시로 발사한 포탄이 경기전을 손상시키자 이를 농민군들이 훼손하였다고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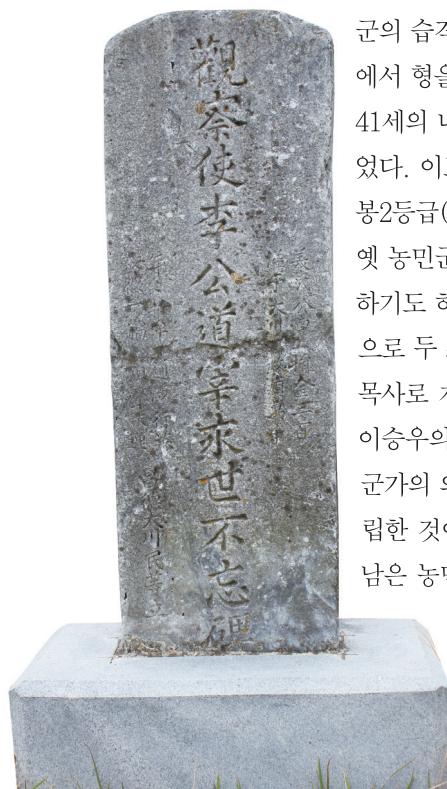
3 추념의 장
4 위봉사

부에 거짓 보고하였다고 한다.

[이도재 영세불망비]

이도재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농민군 진압에 앞장선 인물로, 전봉준, 손회중, 김개남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김개남 장군을 초록바위에서 처형한 것으로 유명하다. 김개남 장군은 우금치전투의 패배 이후 전봉준 장군과 함께 전주까지 후퇴하였다가 다시 남원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후 태인현에 피신하였으나, 1894년 12월에 옛 친구인 임병찬의 밀고로 관군에게 체포되어 전주감영으로 이송되었다. 이도재는 규정상 심문을 위해 김개남 장군을 서울로 압송해야 했으나, 호송하는 도중 농민군의 습격으로 탈취당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조정의 명령 없이 전주성 서문 밖 초록바위에서 형을 집행해 버렸다.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친 김개남 장군의 수급은 서울로 보내져 서소문 밖에 3일간 효수되었다. 이도재는 조정의 명령 없이 경솔히 체포자를 처형하는 큰 죄를 저질렀으나 겨우 감봉2등급(봉급의 10분의 2를 감봉하는 것)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같은 해 같은 월, 옛 농민군인 김경천의 밀고를 통해 순창 피노리에서 전봉준 장군을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하기도 하였다. 현재 완주군 신금리에 위치해 있는 이도재 영세불망비는 가운데에서 절반으로 두 조각이 나는 훼손을 당했다가 다시 맞붙여놓은 모습이다. 이 비 바로 옆에는 홍주목사로 재임 중 호연초토사를 겸임하여 충청도 서북지역의 동학농민군 진압을 주도했던 이승우의 영세불망비가 함께 세워져 있는데, 역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의 의도적인 훼손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보인다. 이는 1907년 지역주민들이 건립한 것이기에,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된 것이라면 동학농민혁명 당시 살아남은 농민군과 유족들의 용어리진 한이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도재 영세불망비

동학교단의 강경노선을 이끈 황하일(黃河一, 1846 ~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언제 어디서나 큰 역사적 사건에 직면한 지도자 옆에는 그를 보필하고 선택의 나침판을 놓아주고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인물이 있다. 실제 역사 흐름은 이런 인물들에 의해 좌우되는 법인데, 바로 그런 역할을 한 동학교단내 인물이 황하일이다.

{ 교조신원운동의 전개와 황하일 }

황하일은 충청도 보은군 송림면 구강교에서 태어난 인물로, 최시형과 서장옥의 오른팔 역할을 한 강경파의 한 사람이었다. 1882년에 동학에 들어온 이후 줄곧 서장옥과 함께 최시형을 보필하면서 동학교세를 확대해 나갔으며, 1892~93년 동학운동의 선봉에 서서 역울하게 죽은 교조의 신원을 부르짖고 탄압받는 교인들을 지켜내려 정부를 상대로 맞서 싸웠다.

1892년 공주와 삼례에서 있었던 동학집회, 1893년 1월 광화문 복합상소, 1893년 3월 보은집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동학운동은 모두 황하일 등이 그 중심에 서서 동학집회를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황하일은 언제나 서장옥 등과 더불어 강경노선을 걸으면서 동학운동이 보다 큰 사회변혁운동으로 나가도록 역사의 물줄기를 잡아나갔다.

{ 남북집 연합의 주역을 맡다 }

그의 나이 48세에 일어난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때는 서장옥과 함께 최시형을 설득하여 동학 내부의 남북집이 연합하는 주역을 담당하였다. 3월 20일 전라도 무장 기포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전주성 접령에 이어 집강소체제를 이끌어냈지만, 충청도는 청일전쟁이 발발한 7,8월에 들어와서야 동학농민군이 본격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갑오년 8월 2일 보은 사각면 넷가에는 동학도 수백명이 집결해 있었다. 보은군수 정인량이 찾아오자, 동학도들은 국가의 위기를 맞아 관민이 함께 항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런 집회를 이끈 인물이 바로 황하일을 비롯한 임규호, 이관영 등 동학 접주들이었다.

9월에 들어와 전라도 동학농민군이 재기병하였다. 문제는 서울 진공을 위해 전국의 동학농민군이 총 연대 하여 북진하는 일이었다. 충북 청산에 머물러 있던 동학 제2대 교조 최시형은 여전히 동학농민혁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자 서장옥은 동학농민혁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최시형을 설득하였다. 그는 최시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절친한 친구인 보은 출신의 황하일을 동원하였다. 황하일은 비록 북접 소속일지라도 동학교단 내부에서 급진적인 인물에 속하는 데다, 전봉준과도 인연이 있는 사이였다. 황하일은 서장옥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병희·손천민 등과 함께 민족적 위기를 내세워 최시형을 설득하였다. 이때 전봉준이 보낸 오지영이란 인물의 역할도 커다고 한다.

{ 남북접 대연합전선의 구축과 황하일 }

드디어 9월 18일 충북 청산에서 전국 동학접주회의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동학교단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시형은 9월 25일경에 일반 동학교인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동원령을 내렸다. 보은 장내리에는 ‘충청좌도 대도소’를 설치한 뒤, 강원·경기·충북 동학도를 집결시켜 손병희로 하여금 통솔하도록 하였다. ‘충청좌도 대도소’는 최시형이 이끄는 동학교단 직속의 동학농민군 사령부로서 주로 충북지역을 관할하였다. 여기에 소속된 동학 접주들

은 보은의 황하일을 비롯하여 회인의 유일수, 희덕의 김복천, 충주의 성두환, 옥천의 박석규, 문의의 오일상, 청산의 이국빈, 청주의 서장옥, 영동의 손광오, 황간의 조경환 등이었다.

이것으로 남북접 대연합전선이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청주 출신의 서장옥과 보은 출신의 황하일, 그리고 전라도 농민군을 이끌고 있는 전봉준의 역할이 커다. 그 결과 9월 말에 이르면 동학농민군의 사령부와 같은 대도소가 보은 장내리, 전라도 삼례와 남원 세 곳에 각각 설치되고 서로 기맥이 닿아 서울로의 북상날짜만을 손꼽고 있었다. 남은 일은 군사력을 확대해 북으로 북으로 향하는 것, 그래서 서울을 점령한 뒤 일본세력을 바다 건너로 축출시키는 일 뿐이었다.

{ 동학농민혁명 이후의 황하일 }

황하일은 분명 이런 계획과 목표로 최시형을 설득하고 대일전선에 참여하였으리라. 그래서 황하일은 충북일대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월 25일 고향인 보은 어디에선가 체포되어 ‘동학당에 투입하여 지방 안녕을 해친’ 죄목으로 1895년 윤 5월에 법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고 3년의 유배형을 선고받았다. 황하일이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그 뒤의 행적도 묘연하다.

이와 같이 황하일은 최고의 지도자 반열에 오르지 못하였을지라도, 시종일관 동학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였다. 그의 삶에 경의를 표하면서, 그가 꿈 꾼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소망해본다.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류태길

동학농민군의 황토현 전투에서 첫 승전은, 동학농민혁명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구체화된 시발점이라는 점에서나 전투의 규모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상징하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1963년 황토봉에 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고, 황토현전적지가 사적으로 등록된 이후 구 기념관 개관, 현 기념관 증축 개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이전되는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 대규모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입안되어있어 황토현 전적지는 명실상부한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황토현전적지에 대한 인지도는 높고 탐방객의 관심도 높아지는데, 문헌들은 구구하고 차이가 많아 구체적인 전투상황과 전투 장소 등을 설명하는 데에 혼란을 주고 있다.

집결한 농민군은 3대로 나누어 세 봉우리에 불을 놓고 관군과 대치하였다. 7일 새벽 세 곳의 불 중에 가운데 봉화만 남고 양쪽의 불이 꺼지자 관군은 농민군이 잠든 것으로 판단하고 기습 공격하였다.”

“관군의 공격을 기다린 농민군은 양쪽에서 관군의 퇴로를 차단하고 앞쪽에서 협공, 즉 삼면을 포위하여 관군을 대파하였다. 관군의 기습을 예상한 농민군은 협공의 계책으로 관군을 격퇴한 것이다.”

[신순철, 이진영 공저『실록 동학농민혁명사』65쪽] 다음은 농민군 선제 기습설이다.

“동학농민군은 관군을 황토현으로 유인한 후 거짓 패하여 약간 높은 구릉지인 두승산록 계곡 시목리로 철수하여 본진을 설치하고 복병 하였다. 4월 6일 저녁 관군은 황토현에 도착하였다. 황토현은 일명 사자봉이라고 하여 사자는 사시(死屍)와 통하니 이곳은 관군의 시체를 묻을 곳이라 하여 농민군의 투지가 만만하였다. 관군의 본영 황토현과 농민군의 본진 시목리는 서로 떨어지기 15정(町, 약 1.6km)으로 서로 대하여 있는 두승산록 맥좌였다. 이날 밤 농민군은 보부상을 가장하여 관군의 진중에 들어가 관군의 동태를 살펴 본진에 보고하였다. 관군은 안심하고 술에 만취되어 잠들었다. 7일 삼경 조금 넘어 농민군 1대는 서남의 정면으로, 1대는 동북의 후영을 기습 진격했다. 관군은 동학군의 내습을 보부상의 침보군으로 생각하였다. 황토현 상봉에 달한 동학농민군은 드디어

황토현 전투개요

황토현 전투에 대해 관군이 먼저 공격했다는 설, 동학농민군(이하 농민군)이 먼저 공격했다는 설, 지명의 위치 등이 혼란의 주 내용이다. 대체로 관군 선제 기습설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동학농민군은… 고부 천태산을 넘어 4월 6일 고부 도교산에 진을 쳤다. 김개남 부대도 6일 도교산으로 진을 옮겨 전봉준, 손화중 부대와 합류하였다. 관군 역시 4월 6일에는 황토재 아래 진을 쳤다. 도교산에

함성, 돌격을 신호로 전군이 호응하여 관군을 무찔렀다.”

[김용덕, 김의환, 최동희 공저『동학혁명투사 전봉준』154~155쪽]

황토현 전투의 재구성

농민군이 4월 6일 천태산을 넘어 도교산에 집결하자 관군은 황토현에 진을 쳤다. 도교산은 천태산 동쪽 아래에 해발 57m의 구릉지로 관군이 유진한 황토현과는 서쪽으로 약 2km 거리에 있다. 앞에 해자 격인 하천(현 덕천천)과 평지 논이 있어 방어에는 유리하나 쌍방 모두 기습공격에는 부적합한 지형이어서 농민군은 황토현 남쪽 시목리 등 고지대 등으로 분산 철수(이동)했다. 농민군은 분산하여 황토현의 관군을 3면에서 포위 형태를 이루며 대치하였다. 이 날 밤 관군이 야습해 올 것을 예측한 농민군은 황토현 남쪽 1.3~1.5km에 있는 세 봉우리(사시봉 해발76m를 중심으로 좌측에 91m고지, 우측에 68m고지)에 불을 밝히고 함성을 지르다가 자정이 되자 가운데 불만 남기고 모두 끄고 진영을 비워두고 매복하였다. 관군은 농민군이 잠든 것으로 알고 불이 꺼진 두 진영을 공격하자 매복해 있던 관군이 일시에 기습하여 관군을 섬멸하고 여세를 몰아 황토현 본진을 공격하여 관군이 패주하였다. 도망하는 관군은 부안에서 출동하여 매복해 있던 농민군에게 기습당하여 궤멸하였다. 여러 기록을 검토해보고 농민군 지휘부의 타월한 전략의 구사 능력으로 볼 때 관군 선제기습 유도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정황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당시의 작전 추정도 참조)

지형과 지명의 위치 검토

두승산(444m)에서 북쪽으로 뻗은 두 지맥은 U자형으로 나뉘져 하나는 천태산 쪽 좌측(서편)으로, 하나는 우측(동편)으로 뻗어 황토봉에서 그친다.

농민군의 본진이 있는 남쪽 고지대는 수개의 봉우리들이 밀집되어 있어 은폐와 매복이 용이하고 두승산 쪽으로 퇴각이 용이한 지역이다. 황토현에 진을 친 관군보다 유리한 지역을 농민군이 선점 한 것이다. 전라감영군이 진을 친 황토현은 황토재로서 기념탑이 서 있는 해발 35.5m의 봉우리가 아니라 통행로에 있는 비탈진 고개로 지방도로를 내면서 잘라진 산등성이다. 관군은 이 황토봉을 중심으로 산등성이와 가정 마을과, 북쪽 돈지 마을 등 구릉지에 진을 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에 황토현을 둘러본 한 퇴역 장성



은 이곳이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 퇴로가 없는 지형으로 진을 쳐서는 안 되는 사지에 해당한다고 했다. 황토현 동쪽 기념관 앞에는 지금은 메워졌으나 당시에는 거무실 방죽이라는 깊은 저수지가 있었고 그 주변은 고라실 논으로 수령논이었다. 관군은 배수의 진을 친 격이다.

사시봉은 현 기념관 뒤 남쪽 해발 76m의 봉우리로 시목리 바로 뒷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황토현 바로 아래 가정리 마을 고노들은 그 곳이 아니고 기념탑이 서 있는 황토봉을 사시봉이라고 다른 주장을 한다. 여기에는 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는데, 관군이 남쪽 고지대에 진을 치려고 하니 인근 주민들이 거짓으로 그 곳이 사시봉(死屍峰)이니 죽을 곳이라며, 일부러 진짜 사시봉인 황토봉에 관군이 진을 치게 하여 패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일대는

사시봉(死屍峯), 진두골(鎮鬪谷) 등 당시

의 치열했던 전투를 말해주는 지명이 많다. [고증 : 가정마을 이환수 씨 74세]

황토현 동쪽에 있었던 거무실 방죽과 그 앞 거무실 마을의 거무실은, 거미 실 즉

“하늘의 이로움(기상, 계절)도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도 사람들의 인화만 못하다.”라고 한 맹자의 유명한 말을 농민군은 적절히 활용했던 것이다.

거미줄을 말하는 것으로 거미줄에 먹잇감이 걸리면 꼼짝 못 하듯이 적을 유인하여 잡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어 황토현 전승과 관련하여 흥미롭다. 왜 관군은 황토현 사지에 진을 쳤을까? 거짓 패주하는 농민군을 얕잡아 본데다가 유리한 고 지대를 농민군이 선점해버려서 고육책으로 낮은 황토현에 진을 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적(농민군)을 쫓아 고부 두승산에 이르렀는데 적이 산위를 점거하고 있어서 관군이 산 아래 있었다.”[남유수록] “병정들은 검사봉에 진을 쳤다가 패진했다 [석남일기]”라는 기록들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문현에 나온 시목리는 현 감녕이골 마을로 기념관 동남쪽 1.2km거리에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은신과 방어에 유리한 지형으로 농민군의 본진이 있었다.

지금 통칭하는 황토현 전투는 혁명 당시에는 고부첩전이라고 했다. 화포장으로 황토현 전투에 참전했던 필자의 증조부(류희원 柳希源)는 전주화약 직후 정혼했던 아들의 혼례를 치르면서 “내가 고부첩전에서 죽었더라면 이러한 영화를 못 보았을 것이다” 하시며 기뻐하셨다는 말을 어린 시절 조모로부터 들었다.

쌍방의 병력 규모와 장비

농민군이 각 포에서 총동원한 인원은 8천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 그러나 야간 전투에 전병력이 투입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4천여 명 정도의 동학군 정예군이 참가하고 나머지는 귀가하거나 예비병으로 다른 곳에 분산 배치되었을 것이다. 오지영의 동학사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고부 인민들은 평소에 단련이 업는니만치 별안간 공겁심이 생겨 헤여지는 자 거지반이나 되고 다만 남아있는 자는 동학군뿐이 엿섰다.”(원문 철자대로 표기) 각 읍 무기고와 화약고를 확보한 농민군은 대창과 농기구만으로 무장한 것은 아니며 상당한 양의 총검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인다.

“감영군의 주력은 전라도 각 고을에서 징발한 향병과 보부상들이 다수 포함되어 2천여 명의 군세를 이루었다.”[신순철, 이진영 공저『실록 동학농민혁명사』]

보부상 부대 천여 명, 무남병(전라감영군) 700명, 토병(신병) 560명 도합 2,300여명이라는 기록도 있다.[동도문변]

다음과 같은 기록으로 보아 관군은 신무기인 양총을 일부 소지 한 것으로 보인다. “관병은 장구대진으로 여답평지로 쏘다저나려오며…(중략) 태인 화호리 나루가에 이르러 전을 치고 란포를 발하였다. 무서운 신식 양총 소리는 천지가 진동하고 총알은 펄펄 나라 오리지나 거의 되는 백산 속싸기를 훌훌 넘어간다.” [오지영 동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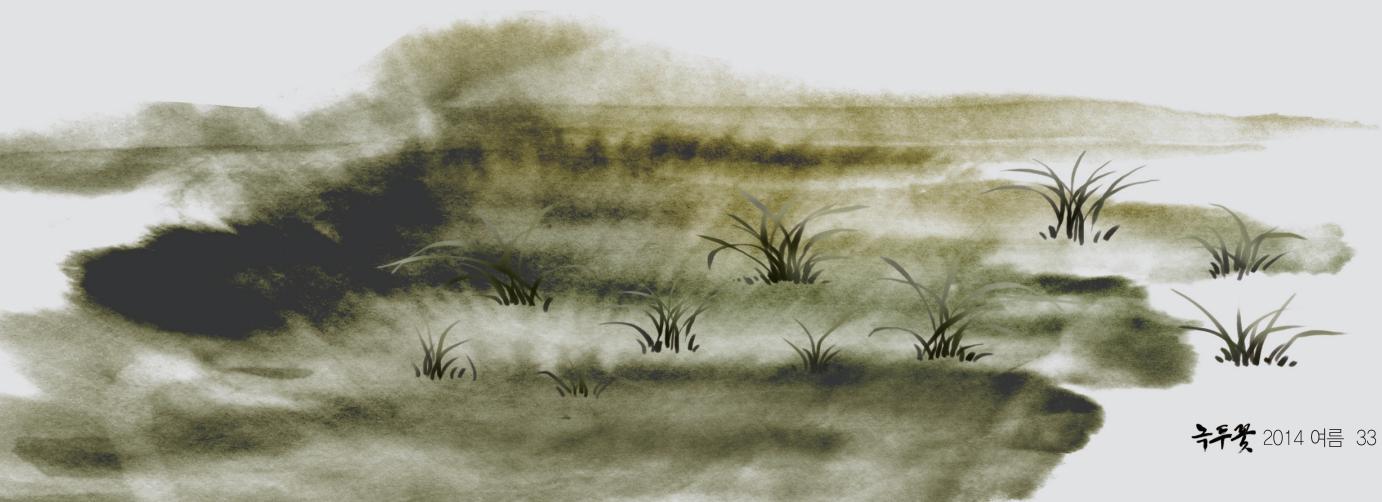
농민군 전승의 배경

농민군이 관군의 약 2배 정도 수적으로 우세했다고 하지만, 무기와 전투력에서 월등한 감영군을 대파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무엇보다 대의를 위한 사명감에 불탄 농민군의 결사항쟁 정신, 지휘부의 탁월한 전략과 병법의 운용, 민중들의 자발적인 지원 등이 종합되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관군은 부패와 군기의 해이, 자만심 등이 패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지형의 이점을 활용한 농민군의 전략이 돋보인다. “하늘의 이로움(기상, 계절)도 지리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의 이로움도 사람들의 인화만 못하다.”라고 한 맹자의 유명한 말을 농민군은 적절히 활용했던 것이다. 거짓 패한 척 황토현으로 관군을 유인한 전략은 바로 손자병법의 궤도(詭道-속임수) 중에서, “능력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보여라(能而示之不能).”, “저자세로 상대의 교만을 부추기라(卑而驕之)라.”는 병법을 구사한 것이다.

황토현 전투의 현장 조사 연구와 현장 보존, 발굴의 필요성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필수적으로 전쟁이라는 물리적 수단을 수반하고 전쟁의 승패가 바로 혁명의 성패로 연결된다. 그래서 전쟁 양상의 치밀한 해부와 연구가 혁명의 성격을 규명하고 이해하는데 실효적일 수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군사학적 연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세밀하고 정확한 객관적 기록이 부족하고 기록조차도 일치되지 않는 점이 너무 많은 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시목리, 사시봉 일대에 대한 조사, 발굴과 보존도 필요하며 동학농민혁명 전쟁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백, 역사를 위한 소설

동학농민혁명, 그리고 전봉준 장군을 생각하며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은 녹두 혹은 녹두꽃일 것이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이 120주년이 되는 2014년의 초입, 조심스레 동학농민혁명의 기억을 두드린 역사소설의 제목은 동백이다. 본문에서는 전봉준 장군이 동백을 바라보는 장면을 ‘겨울에 피는 동백이 핏빛이라면 봄에 피는 춘백은 연분홍빛이다. 핏빛 동백이 처절하다면 연분홍은 애잔하다. 전봉준은 핏빛 동백이 좋다.’라 표현하고 있고, 또한 전봉준 장군이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는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핏빛 동백이 졌다.’라 언급한다. 작가는 동학농민혁명 역사소설의 제목을 어째서 동백이라 하였을까?



어째서 동백인가?

본문에 언급된 대로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다. 여타 식물들이 봄을 기다리며 하나같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동백은 여봐라는 듯 자신의 붉은 빛을 펼쳐낸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기에 동백은 붉은 빛은 더욱 화사하여 홀로 봄을 맞이한 듯 보인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조선은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다. 안으로는 농민 총의 양극화, 삼정의 모순과 문란, 봉건제도의 부정부패로 나라가 썩고 꽂아 들어가고 있었으며, 밖으로는 일본, 중국 등 열강의 위협과 경제적 침탈로 인해 휘청대고 있었다. 모두가 세상의 어지러움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이익과 일신의 안위를 위해 눈을 감고 있을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뜻을 세상에 포고하고 일어섰던 동학농민혁명은 설원에 독야정청(獨也青青), 아니 독야홍홍(獨也紅紅) 피어난 동백과도 같았다.

또한 동백은 남쪽지역에서 서식하며, 향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빛만으로 새들을 불러 모으는 조매화(鳥媒花)이다. 전봉준 장군은 여러 포고문, 격문에서 동학농민군에게 참여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이러한 붉은 의지는 수만, 수십만의 농민군이 모여들어 관군과 경군을 격파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러



나 남쪽 전주성의 점령은 성공하였으나 북진을 위한 분수령인 우금티를 끝내 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또한 동백과 겹쳐 보인다. 끝내 동학농민 혁명은, 그리고 전봉준 장군은 송이 째로 지는 동백과 같이 그 정신과 기상을 오롯이 간직한 채 떨어져 내렸다.



역사를 위한 소설

작가 전진우 씨는 후기를 통해 “지나치게 극화한 역사는 오히려 바른 역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역사가 ‘어제와 오늘의 대화’(E.H.카)를 통해 내 일을 읽는 것이라면 바른 역사읽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하여 나는 역사 를 쓰고 싶었다. 소설적 구성은 사실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에만 머물게 하고 싶었다.”라 언급하고 있다.

저자의 말대로 소설 『동백』은 역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학농 민혁명을 여러 연구가들의 논문과 평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제공 한 사료를 기반으로 최대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그럼에도 역사서나 보고서적인 이미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실 위를 활보하는 인 물들이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김개남, 손화중, 김 덕명, 최경선 등 동학농민군 지도자 들이나 고종, 민영환, 김학진 등 조정 의 인물들, 원세개, 무츠 미네미츠, 이노우에 가오루 등 열강을 대표하는 인물들, 일본의 꼭두각시로 복권하게 된 대원군 등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작가가 부여한 개성을 통해 입체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또한 막치와 분 이 등 창조된 인물들의 활약 또한 이들에 뒤지지 않는다.

작가는 이들의 교차되는 시선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전체를 훑뚫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학농민혁명은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한층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핏빛 동백이 지다

‘났네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셔야 백성이 한 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나’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떨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과 같이 소설 『동백』은 전봉준 장군 의 죽음으로 그 끝을 맺는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나를 죽일진대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컴컴한 적굴에서 암연히 죽이느냐?’는 마지막 말을 남긴 전봉준 장군 은 소설 속 자신이 좋아하던 핏빛 동백처럼 졌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처 절하지 않다. 결연하고 의연하다.

작가는 소설의 끝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 가 종로 네거리에 뿌리고 싶어 했던 그의 피는 곧 그의 말이려니, 그 말은 여직 우리 귀에 생생하지 않은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선정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념하고,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포스터 공모전’의 접수가 지난 4월 7일(월)부터 5월 25일(일) 까지 진행되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전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를 나누어 공모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선양하고자 하는 내용, 동학농민혁명의 발생배경, 동학농민군의 활동모습 및 성과,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했다면 이후 달라진 모습 등을 주제로 하였다. 접수마감일까지 중등부 18점, 고등부 29점, 대학(일반)부 34점으로 총 81점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5월 29일(목)에 열린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중 대상 3작품, 우수상 7작품, 장려상 11작품 등 총 21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대상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이,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이번에 공모된 포스터를 120주년 기념 특별전에 함께 전시하여 방문객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계획 중이다.



왼쪽부터 중등부 대상, 고등부 대상, 대학(일반)부이다

기념재단

사방통문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장 재단방문



지난 4월 15일(화)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장을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담당사무관, 주무관들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은 지역민족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인문정신문화과에서 업무를 이전하여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재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인문정신문화과장을 비롯한 실무자 3명이 재단을 방문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둘러보고 재단 임원들과 제반사항에 대해 의논하였다.

2014년 동학농민혁명기념 공원조성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추진위원회 1차 회의가 지난 4월 18일(금) 용산역 ITX 3 회의실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 전문가, 건축 전문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17명의 추진위원이 모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기본계획 검토 및 설계공모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추진위원회에서는 기념공원 기본계획 검토 및 설계 공모방안에 대해 기념공원 컨텐츠에 대한 연구 진행의 필요성, 황토현전적지에 대한 철학적 해석과 기념공원 최종 예상결과물 및 방문객의 지속적 유인 프로그램의 사전검토에 대해 새로운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며, 기념공원 설계공모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념대회 공동개최 업무협약식(MOU) 열려



지난 5월 15일(목) 수운회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천도교,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간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공동협력 양해각서(MOU) 협정식이 열렸다. 각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협정식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식 등 8가지 사항을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협의하였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은 “박남수 교령님과 유족회에서 대승적으로 판단, 양보해 주셔서 오늘의 체결식이 가능하게 됐다. 세 단체가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덜 부끄러운 후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다.”고 언급하였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 실시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화합·상생·평화)을 표현할 ‘동학농민혁명 기념가’를 공모한다.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로서, 재단에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열들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얼이 담긴 기념가를 공모하여 기념대회는 물론 각종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행사, 추모제 및 위령제 개최 시 활용할 계획이다.

5월 19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념가 공모는 대상, 우수상, 장려상 각각 1명을 선출하여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식(10월 11일(토)) 중 열린다.

재단 2기 4차 이사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2기 4차 이사회가 지난 6월 10일(화) 용산역 ITX 5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추진현황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3차 이사회 이후 추진된 동학농민군 유골안장,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문화재 등록사업, 상생의 정원 조성 등을 보고하였다. 이날 참여한 이사들은 P.A를 통한 설계공모안 마련에 객관적이며 엄밀한 검증절차를 통해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재단의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소식

(사)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

전봉준장군 추모제 개최

지난 4월 24일(목) 정읍시 이평면 전봉준장군 단소에서 전봉준장군 추모제가 열렸다. 이번 추모제는 작년 동장소, 시기에 열렸던 전봉준장군 시향제의 명칭이 교체된 것으로, 행사 주체도 천안전씨 문효공파종회에서 설립한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전해철)로 변경되었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생기 정읍시장, 이갑상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전봉준장군의 기일을 기리며 그 뜻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전봉준장군기념사업회에서는 시향제가 추모제로 명칭을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행사보다 규모를 키울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하기 위해 축소하여 간소하게 치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학술대회 열어

고창군에서는 지난 4월 24일(목) 고창군 귀농학교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사 연구회와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고창과 동학농민혁명과의 관계’(발표: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토론: 김양식 충북학연구소장),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창의문)의 사료적 가치와 위상’(발표: 배항섭 성균관대학교 교수, 토론: 성주현 청암대학교 교수), ‘동학농민혁명 기포지에 대한 연구’(발표: 이병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토론: 조재곤 덕대역사문화연구소 교수)의 순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신영우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고창군에서는 ‘이번 학술대회는 무장기포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보는 자리로, 이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린 대표적인 유적지인 만큼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학술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전했다.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120회 무장기포
기념제 개최**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강수)에서는 지난 4월 25일(금) 무장읍성에서 무장기포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무장기포기념제는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무장읍성 축제로 성 대하게 계획되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공연 등 일부계획을 생략하여 축소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사회기관단체장, 고 창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기념식 중 열린 녹두대상 시상식에서는 일본의 조 선침략 등 근대 한일관계사 진실 규명과 동학농민 혁명관련 연구에 매진해 온 나카츠카 나라여자대학 교 명예교수가 수상하였다. 이날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진윤식 부이사장은 “오늘 행사가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아 동학농민혁명의 전국적 인 출발지로서 고창의 위상과 지역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
**백산봉기
기념대회 열려**

제120주년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대회가 지난 4월 25일(금) 백산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회장 김원철)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념대회는 백산성 현화 이후 세 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실내에서 간단히 진행되었으며, 김호수 군수를 비롯해 김춘진 국회의 원, 부안군의장, 부안군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백산성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이어가는 곳으로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가꾸고 동학농민군의 고귀한 뜻을 계승해 지역발전에 원동력으로 삼을 것”이라 말했다.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제120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개최

지난 4월 26일(토) 제120주년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장흥공설운동장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에서 열렸다. 관련단체 지자체 관계자, 군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기념제는 이종찬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윤승중 장흥 부군수, 김석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이운영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관장의 추념사 이후 현화분향과 동학농민군 폐정개혁안 낭독이 이어졌다. 이날 사업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석대들전적지 성역화 사업으로 진행된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축이 현재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과정을 남겨두고 있으며 올해 12월 개관 예정이라 밝혔다.



흔불기념사업회, 최명희문학관

흔불 청소년 문학상 동학농민혁명 주제로 공모

흔불기념사업회와 최명희문학관은 7월 31일(목)까지 전북지역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4회 흔불학생문학상’ 응모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흔불학생문학상은 전북지역 소설가 최명희를 추모하며 「흔불」을 통해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201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2주 갑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이 주제로 결정되었다. 학생문학상은 심사를 통해 학생 42명과 교사 3명 등 45명을 시상하며, 상금으로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이 주어진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이메일(jeonjuhonorbul@nate.com) 송부나 최명희문학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다. 비록 그들의 싸움은 한글로 표기되었지만 그들이 봉학 청년이었음을 이전히 흔하지 않았음을 명령하게 되었다. 한민족의 사상적 기반인 동학을 세계적으로 알리려고, 알리려는 일은 전국 전문회의 기사와 활동, 제작인하고, 세계 속에 빛날 한국 전통문화의 밝은 미래를 전망해 보는 기회일 것이다.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121년 전 원평장터, 다시여는 원평취회행사 개최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지난 5월 9일(금) 원평장터에서 '121년 전 원평장터, 다시여는 원평취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다소 축소되었으나 경건하게 진행된 기념행사는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식전공연 이후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기념사와 민족 혼선양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사)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최고원 사무국장은 올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기점으로 김제의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문화제를 매년 5월 9일에 정기적으로 열어갈 계획이라 밝혔다.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제47회 황토현기념제 열려

지난 5월 11일(일)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제 47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열렸다. 이번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 2주갑을 맞이하여 참신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고 공식행사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행되었다. 기념제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에서 열린 47회 기념제 기념식으로 문을 열었다. 기념식 중 시상된 제4회 동학농민혁명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에 흔신의 노력을 기울인 故 표영삼 선도사가 수상하였다. 이어 갑오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구민사 갑오선열 위패봉안례 진행되었으며, 120주년을 맞이하여 애심차게 준비된 갑오만민공동회 '갑오의 꿈'에서는 참여자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열정적으로 제시하였다.

이갑상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기념제는 갑오만민공동회를 통하여 2주갑을 기념하고 앞으로 동학정신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선양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전환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천도교 중앙총부

제120주년 황토현 전승기념식 개최

제120주년 황토현 전승기념식이 지난 5월 11일(일) 황토현 전적지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앞에서 개최되었다. 황토현 전승기념식은 동학농민군이 관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머쥐었던 황토현 전투를 기념하고자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작년부터 주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김생기 정읍시장, 김석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폐정개혁안 낭독, 천덕송 합창, 만세삼창 등의 식순이 진행되었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비통함과 안타까움을 전했으며, 10월 10일(금)부터 10월 11일(토) 까지 열리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가 세계 전역에 동학농민혁명의 이념과 이상을 널리 현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모시는 사람들

동학농민혁명 뮤지컬 '들풀 II' 상연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극단 모시는 사람들 창단 2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5일까지 과천시민문화회관에서 뮤지컬 '들풀 II'의 공연이 열렸다.

'들풀 II'는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였던 1994년에 상연된 '들풀'을 20년이 지난 후 새롭게 제작한 것으로, 동학농민혁명 당시 최대의 격전지였던 우금치전투를 배경으로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농민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짧은 제작진이 여럿 참여해 20년 전과 사뭇 다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컬 '들풀 II'의 권호성 연출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기에 의미 있는 공연을 누군가가 올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요즘처럼 어려운 대한민국에 용기와 희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밝혔다.



광주 · 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장성황룡전투
승전기념식 열려

지난 5월 27일(화) 장성황룡 동학농민군승전기념 공원에서 제120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군 승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장성황룡전투에서 경군을 맞아 대승을 거둔 동학농민군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 · 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추진 위원회와 천도교 중앙총부, 장성군 농민회가 개최하였다.

행사는 이상식 광주 · 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의 경과보고 이후, 홍번 장성군농민회 고문의 12개조 폐정개혁안 낭독, 박남수 천도교 교령의 기념사, 정현호 장성군 부군수의 환영사, 김대곤 동학 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박남수 천도교 교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사람, 다시 하늘이 되다라는 구호를 중심으로 이 사회, 이 국가, 이 세상의 흐름을 변혁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라 밝혔다.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0주년 기념식 개최

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0주년 기념대회가 지난 5월 31일(토)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대회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반전평화 · 공생공영 · 나눔과 배려라는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 함을 목표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자료사진과 학생작품을 전시한 120주년 기념전과, 전주지역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를 돌아보는 유적지 탐방으로 문을 열었다. 오후 5시에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이후 이이화 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의 강의와 ‘녹두의 꿈, 코리아의 꿈’이라는 주제로 문화공연이 열렸다.

문병학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은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현재화를 추구하는 데 문화공연의 목적이 있다. 120돌을 맞아 크게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알려드립니다

웹진‘녹두꽃’독자원고 모집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에서는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들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내용 :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기,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아갈 길 등
동학농민혁명 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 분량 : A4용지 1 ~ 2장 가량(11포인트, 줄간격 180%)
- 보내실 곳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jiori@1894.or.kr
우편송부 또는 이메일 송부

* 송부 시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심사를 통해 선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법정기부금 기탁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습니다.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으로서,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법정기부금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공모안내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맞이하여 그 혼을 현재에 일깨우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학농민혁명정신을 표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가’를 공모합니다.

□ 공모주제

동학농민혁명 기념가

□ 공모대상

전 국민(제한없음)

□ 접수기간

2014. 5. 19(월) ~ 7. 18(금)

□ 시상내역

대상 1명 상금 5,0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우수상 1명 상금 2,000,000원(기념재단 이사장상)

장려상 1명 상금 500,000원 (기념재단 이사장상)

□ 제출서류 및 제출물

- 응모신청서 1부

- 악보 3부 (A4사이즈, 16마디 이상, 2절 이상)

- 녹음된 응모곡(가사포함), 악보가 저장된 CD 1개

□ 접수 및 문의

우편 및 방문접수 : 580-833.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문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Tel. (063)538-2896 E-mail. djiori@1894.or.kr

※ 자세한 내용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포럼 회원 모집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자주 · 평등 · 개혁 정신을 오늘의 시대정신으로 계승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가치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동학농민혁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國權)을 수호하기 위해 쓰러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과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통해 내일을 알고자 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통해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뜻있는 분은 ‘동학농민혁명 포럼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 동학농민혁명포럼 가입시 우대사항

- 동학농민혁명 관련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 우선 참여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개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우선권 부여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주최 전국기념대회 및 각종 행사 초대
- 동학농민혁명포럼 회원간의 발표회 및 토론회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간 서적, 각종 자료 등 무료 제공 등

※ 가입 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 상단 [포럼회원가입] 클릭

※ 문의 : 기념사업부 최경훈(063-538-2894, oasis@1894.or.kr)



웹진 '녹두꽃' 수신요청방법

Since 1894
동학농민혁명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2014. SUMMER

녹두꽃 소식

발간사

주요사업

- 제단포카스
- 기획특집

칼럼 & 인터뷰

- 녹두칼럼
- 인터뷰 ① 본글 참여자 유죽
- 인터뷰 ② 동행공감

동학농민혁명

- 본보기
- 비로일기
- 인물열전
- 유적지

소개합니다

- 독자투고
- 동학농민혁명 포스터 공모전
- 동학농민혁명 도서관

2014 여름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4년 여름호(16호) 발행 2014년 7월 7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발행인: 김재근 | 주소: 인천 경기시 미추홀구 화정로 742 | 전화: 033.538.2996
팩스: 033.538.2992 | E-mail: 1894@1894.or.kr | homepage: www.1894.or.kr | 제작: 에이엠비미비
본문에 실린 원제 칭호와 같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간지 ('녹두꽃')은 청간호(2010년 기준)부터 이번호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계간으로 발행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웹진 '녹두꽃'은 수신요청을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신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djiori@1894.or.kr로 수신희망 이메일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